

‘광주형 일자리’ 복지 인프라 건립 속도

빛그린 산단 내 450억 투입 노사동반지원센터 첫 삽
공공어린이집 이달 완공...임대주택·체육관 등도 착착

노사동반지원센터가 공사에 들어가는 광주지역 노사 상생형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복지 인프라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18일 광주 빛그린 국가산단 내 건립 부지 현장에서 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2019년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서’ 체결로 시작한 센터 건립 사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 선정, 기본·실시설계, 공사 업체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쳤다.

국비 216억원, 시비 234억원 등 45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빛그린 산단 내 부지 8247㎡에 연면적 1만3858㎡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7층의 본관과 6층 규모의 별관을 건립하게 된다. 시설에는 사무실, 상담실, 작업복 세탁실, 건강 증진실, 다목적 강당, 교육프로그램실, 숙박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센터가 건립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 거점, 노사 상생 산업 생태계 구축, 사회적 대화 구심 역할 등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고용 없는 저성장, 양극화, 국민 행복지수 추락 등 무너지는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광주에서부터 노동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기업에 수익을 주는 노사 상생의 도시를 실현하겠다”며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적 추진 및 확산을 위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임금을 낮추는 대신 근로자에게 복지 지원을 하는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 중이다. 시는 빛그린 산단 입주 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공어린이집, 임대주택, 체육관, 진

입도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착공한 공공 어린이집은 이달 완공한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공공택지 지구로 선정된 빛그린 산단 인근 산정·장수동 일대에는 8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는다.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 계획이 승인되면 2025년 착공, 2029년 완공 예정이다. 주거단지 조성까지는 광주 북구 임동과 남구 효천지구의 임대주택을 임시 공급할 방침이다.

체육시설, 작은 도서관을 갖춘 개방형 체육관은 지난 6월 공사에 들어갔으며 내년 7월 준공한다.

빛그린 산단에서 국지도 49호선(광산구 본량동)과 광주순환고속도로 2구간이 만나는 지점인 본량나들목까지 6.5km 구간을 잇는 진입도로 건설 사업은 내년 공사에 들어가 2024년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노사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 정책을 담당할 ‘광주 상생 일자리재단’은 올해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8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빛그린국가산단에서 열린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기공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 역본부 의장,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참석자들이 공사 시작을 알리는 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 인공지능 사업 신규 일자리 창출 견인

올해말까지 1000명 대상

광주형 디지털일자리 창출 교육

광주시의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장의 밑거름이 되는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광주형 디지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민 대상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한다. 데이터 라벨링 과정은 수집된 텍스트, 음성, 이미지 데이터에 라벨이나 주석을 달아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으로, 인공지능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단계다. 누구나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진입할 수 있으며, 광주에 데이터 산업 인력양성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6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해 총 586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이미 341명이 데이터 라벨러로 활동 중이다.

올해도 오는 27일 ㈜아이엠텐의 교육을 시작으로 12월말까지 총 1000명이 광주AI창업캠프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평균 4시간에서 8시간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수료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한 참가자는 교육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관련 기업의 데이터 가공 업무에 참여해 재택근무 또는 현장근무 등 디지털일자리(1~3개월)를 제공받게 된다.

광주시·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앞서 지난 6월 ㈜테스트웍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광주지역 발달장애인(5명)에 대해 인턴십과 연계하는 AI데이터 가공 교육(9~11월 예정)을 통해 4차 산업시대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힘쓰기로 했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빠르게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변화를 맞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해 디지털 뉴딜 일자리를 제하고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시아노 관광단지·남부권 개발 등 국비 요청

김영록 지사, 문체부장관에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18일 지역관광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관광 개발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2022년도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현장방문은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기업도시 구성지구 현장 점검과 지역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현장을 함께 시찰하면서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국비 33억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호텔&리조트 사업의 2022년 예산 108억원 ▲문체부 남부권 관광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8억 원 등이 2022년도 국고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에 세계 최대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포함한 솔라시도 태양광발전단지가 조성돼 운영 중인 점을 소개하며, 토지활용도 제고 및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한 개발구역 확대를 건의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부족한 기반시설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2017년부터 국비 지원 건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7억 원을 확보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 있으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도가 자체 발굴한 86개 사업을 반영하고, 섬·해양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남도 섬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재부와 문체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김 지사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남은 청정, 힐링 관광의 최적지로 손꼽히면서, 지난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39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며 “전남의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 거점화를 위해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자원 활용 개발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황희 장관은 “국내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역 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부권 관광개발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저소득층 14만명에

추가 국민지원금 24일 지급

전남도는 18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과는 별도로 1인당 10만 원씩 총 143억원을 일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14만 3000여명이다.

현재 월별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급여), 법정 차상위(장애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대상자 급여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다만 계좌 확인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 차상위(본인부담경감·지혈) 가구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거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계좌 오류가 생기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확인을 거쳐 9월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 생계지원’으로 가구당 50만 원씩 8만1000가구에 30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서 20~22일까지

핸드메이드 페어 열린다

섬유·한지 등 100개 공방 참여

광주 최대 수공예품 전시·판매 행사인 ‘제10회 빛그린 핸드메이드 페어’가 20~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100여개 공방에서 섬유, 한지, 도자, 금속 등을 활용한 전통 공예품은 물론 생활 자기, 천연 염색, 가죽 공예 등 개성 넘치는 수공예품을 선보인다.

광주 공예상품 홍보관에서는 대한민국과 광주 공예 명장 작품, 지역 우수 수공예 브랜드인 ‘오옴즈’ 상품, 디자이너와 함께 개발한 스타 공예품 등을 만날 수 있다.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울산, 여수 등 우수 공방의 공예품을 선보이는 영호남 교류전도 마련된다.

비대면 마케팅을 위해 수공예품 전문 온라인마켓 ‘아이디어스(idus)’와 공동으로 온라인 전시·판매전도 병행한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최근 문화·예술적 감성과 개성을 강조하는 소비 추세와 함께 핸드메이드 상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로 수공예품의 매력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자산·공제 3,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신축사옥 임대문의 환영

※임대업종: 한방병원, 병의원, 커피숍, 초밥전문점 등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충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 입구)

2020년 출자금 3.0%배당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 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대출상담 환영 집단지매(중도금, 잔금)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전세(임차)자금 대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